

서평

하루나가 아이작슨&프란체스코 스페라 (공저),  
『마이프레야나타의 『세까니르데샤』와 라마빨라의  
『세까니르데샤판지까』, 산스끄리뜨와 티벳역의 비판  
편집본과 영역, 그리고 사본 복제』

[Harunaga Isaacson and Francesco Sferra, The  
*Sekanirdeśa* of Maitreyanātha (Advayavajra) with the  
*Sekanirdeśapañjikā* of Rāmapāla, –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and Tibetan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 and  
Reproductions of the Mss. 2014. (2015년 출판, 589쪽:  
ISBN 9788867190683)]

방정란

대정대학교 종합불교연구소

## 고전학으로서의 불교, 밀교 연구에서의 문헌학

학문으로서 불교는 고전학이라는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교학에서 사상적 발아와 전개를 추적하는 데에 고전(古典)의 범위에 속하는 일차(primary) 자료들의 연구가 가장 기초적이자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불교사(史)의 맥락에서 종교·철학 관련 주제를 다룰 때, 원전 텍스트는 물론 각종 사료들에 근거하지 않은 서술이란 신박한 자기주장은 될 수 있어도 설득력 있는 학문적 논의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간혹 ‘고전학으로서의 불교’와 ‘철학으로서의 불교’ 사이의 경계에 관한 담론에서 원전문헌연구가 ‘원석을 캐는 것’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원석의 채굴은 사본을 통해 전해진 텍스트를 문헌학

(philology)<sup>1)</sup>적 방법을 통해 비판 편집본(critical edition)으로 만드는 일에 상응한다 봐야 할 것이다.

불교학 가운데 인도 밀교학 분야는 지속적 관심과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다른 분야보다 미개척된 부분이 많고, 더러는 특정 지역이나 지역적인 불교의 한 형태로 오해받기도 한다.<sup>2)</sup> 이는 앞서 말한 바대로 아직 채굴되지 않은, 혹은 채굴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파내지 못했던 ‘원석’들이 연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많은 학승들은 기원후 12-13세기를 전후한 이슬람의 탄압을 피해, 주요 사원들이 파괴되기 전부터 서서히 중요 경전과 저술들이 담긴 사본들을 들고 네팔을 거쳐 티벳 등의 여러 등지로 향했다. 그리고 그렇게 화마를 피한 사본의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불교사를 추적할 수 있는 각종 문헌들을 전해 주고 있다. 초기의 밀교 연구사는 현지 탐사를 통해 범어 사본을 접근, 기록, 수집할 수 있었던 유럽이나 인도, 일본학자들에 의해서

---

1) 국내학계에서, 특히 불교학 연구 분야에서 문헌학(philology)이란 용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끔 모호하고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서양 고전학에서 정립, 정의되었던 문헌학이란 전통적으로 전승된 문헌의 역사연구를 포함한 ‘언어의 역사 연구(the study of history of language)’를 말한다. 파생된 비교문헌학(comparative philology)도 원전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언어역사학적 입장에서 비교하는 방법론으로, 이 또한 불교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방법론 중 하나이다. 학문적 방법론으로서 문헌학은 문헌이란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한 관련 역사를 다루는 언어학이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문헌학은 원전연구에서 있어서 사본, 비문 등으로 전승된 원전의 충위, 개정들 사이에서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버전을 연구, 제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편집되었을 때, 편집된 각종 원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번역, 분석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석학/경전해석학(hermeneutics)의 영역이 열리게 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단지 원전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자체를 ‘문헌학’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문헌학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아직까지도 밀교가 단순히 티벳 불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일들이 국내학계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가 얼마나 변방의, 소외된 학문으로 오해를 받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도 할 수 있다. 금강승(Vajrayāna) 혹은 진언승(Mantrayāna)라고 불리는 인도 밀교는 인도 대륙에서 불교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기원후 12-13세기 무렵까지 가장 번영하고 발전된 형태의 불교의 모습 중 하나였다. 그 영향력은 네팔을 넘어 티벳 등지로 퍼져나갔고, 방대한 양의 인도찬술 밀교 경전과 주석들은 티벳어로 번역되어 밀교사 연구에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 인도 밀교가 티벳 불교의 뚜렷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원천이 된 것은 자명하나, 인도 밀교와 티벳 밀교의 교집합의 존재가 인도 밀교가 티벳 불교로 포섭된다는 비약으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밀교 연구에서 인도찬술문헌의 연구 중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과 자각은 그간 밀교연구사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일본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과거의 연구결과라도 티벳역과 한역 자료만을 참고해 연구되었다면 현존 범어 사본이나 원전을 통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관련 학자들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뤄졌고, 많은 중요 문헌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 편집본으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내용과 중요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고, 편집된 문헌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본이 재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더하여 티벳어, 한문 등으로 번역된 경우에는 관련 사료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수정되어야 할 쟁점들도 산재하다. 그러므로 인도 밀교 관련 최신 연구 성과 상당수가 비판 편집본과 번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계 동향에서 보자면, 본서는 현재 학계에서 (그리고 향후에도) 인도밀교분야를 선두에서 이끄는 두 학자의 노고가 집약되어, 문헌학을 바탕으로 한 (원전은 물론 번역된 이차문헌을 망라한) 고전연구가 인도밀교사의 한 장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의 정점을 보여준다. 본 서평에서 각주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나 추가적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 자료도 소개하고자 했다.

이슬람 지배의 영향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서서히 쇠퇴하기 직전까지 인도의 불교는 바즈라야나(Vajrayāna)라는 판뜨리즘의 사조에 힘입어 다채로운 변영을 누렸다. 여기에는 벵갈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빨라(Pāla) 왕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 시기에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던 비끄라마실라(Vikramśīla) 사원은 11세기 무렵 ‘육현문(六顯門, six-gatekeepers)’<sup>3)</sup>이라고 불리는 걸출한 대승 그룹을 배출해 내던 장이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러한 인도 밀교의 변영기 한 가운데에서 활약했던 마이뜨레야나타(Maitreyanātha)<sup>4)</sup>가 지은 『세까니르데샤 *Sekanirdeśa*』(관정의 해설)와 직계 제자였던 라마빨라(Rāmapāla)가 스승의 가르침을 해설한 주석서 『세까니르데샤판지까 *Sekanirdeśa-pañjikā*』의 비판편집본

3) 물론 이 시기 비끄라마실라 사원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대학승들이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대승 철학의 각 교설적 입장을 담당, 대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도의 사료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육현문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티벳 사료에서만 확인된다. 그 학승들의 숫자가 당시에 여섯 명으로 정리되는 것은 후대의 평가일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Greg, Seton, *Defining Wisdom: Ratnākaraśānti's Śāratamā* (D.Phil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2015:22-34와 加納和雄, 「ヴィクラマシーラ寺の六賢門をめぐる史料とその問題点」, 『印度学佛教学研究』 Vol.65-2, 2016:(108)-(114) 참조 가능.

4) 성인전에 따르면 스승이었던 사바레슈바라(Śabareśvara)에게 아드바이바즈라(Advayavajra)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하며 (본서 p.67), 티벳사료에서는 흔히 마이뜨리파(Maitrīpa)라고 불린다.

이다. *Sekanirdeśa*는 본서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아드바야바즈라상그라하 *Advayavajrasamgraha*』(아드바야바즈라[=마이뜨레야나타]의 [저작]모음집)에 속해 출판<sup>5)</sup>되었지만, 라마빨라의 주석서는 본서를 통해 처음으로 편집, 번역되었다. 권두에서 전하듯, 이 주석서를 전승하는 두 개의 사본(약호 Ca와 Pt)의 발견은 상당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소장 사본(약호 Ca)이 *Sekanirdeśa*의 주석의 한 종류라는 것을 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인도학 교수인 하루나가 아이작슨(Harunaga Isaacson)이 확인한 것은 1990년대 말이었는데, 이 사본은 폴리오의 결손이 상당해서 온전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2005년도에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동양학 교수인 프란체스코 스페라(Francesco Sferra)가 별개로 러시아에 소장되어 있던 한 사본(약호 Pt)이 동일한 텍스트를 전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 사본 또한 온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으나, Ca에서 결락된 많은 부분을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곧 이들은 합심하여 강독을 준비해 2005년부터 이 문헌을 편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본서의 출판연도는 2014년이지만, 실제 출판은 2015년이니 따져보자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십년이 넘어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하겠다.

## I. 인도 밀교 문헌 연구의 전형(典型) 제시

책의 구성은 크게 서론(Introduction)과 본론(편집 텍스트들과 영역), 부록(Appendices)이라는 세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서론 부분은 본 편집본의 문헌과 저자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지만, 연구사적 단행본으로 친다면, 본론이라고 부를만한 논의와 연구 성과가 실려 있다. 본론의 번역 부분(본서 pp.255-334)에서는 방대하고 상세한 각주들을 통해 사본의 이독(異讀 variants)과 티벳역 사이의 불일치 여부 등처럼 문헌 편집기준에 대한 논의는 물론, 문법과 구문에 대한

---

5) 기존에디션들의 특징과 *Sekanirdeśa*라는 제목과 관련된 기존의 오해에 대해서는(본서 pp.91-92) 참조.

또 다른 해석 가능성, 특정 용어와 개념에 대한 다른 저자들의 논의와 타문헌의 언급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어볼 만하다. 또한 본서에서 사용된 각종 범어 사본의 이미지는 복제(reproduction), 간행되어 권말에 전부 수록 되어 있으므로, 이 책이 다루는 연구 성과 말고도 직접 그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독자라면 활용해 볼 수 있다.

내용별로 정리하자면, 간략한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제일 먼저 마이프레이나타와 제자 라마빨라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해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마이프레이나타의 일대기를 추측할 수 있는 다섯 종류의 자료를 정리해서 소개하고, 인도 저자의 일대기를 추적할 때 텍스트 기반 방법론이 취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종류를 예시하고 있어 사료로서 텍스트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의 접근방식을 참고해 볼만 하다.<sup>6)</sup> 여기서 언급된 자료 중 첫 번째는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의 카이저 도서관(Kaiser Library) 소장 범어 사본 MS 142 중 두 엽(folio)에서 전하는 마이프레이나타의 일대기이다. 해당 텍스트는 따로 Appendix 7(본서 pp.421-430)에서 재편집, 영역되고 있고, 해당 문헌의 연구사 소개와 함께 해당 사본의 이미지도 수록되어 있다. 마이프레이나타는 특히 Amanasikāra라 불리는 전통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로, 위대한 수행자인 나로파(Nāropā), 사바레슈바라(Śabareśvara)를 통해 그 비전을 이어 받았으며, 비끄라마실라 사원의 대학승인 라트나까라산띠(Ratnākaraśānti), 즈냐나슈리미트라(Jñānaśrīmitra) 등으로부터 주요한 불교 철학을 배웠다고 알려진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마이프레이나타의 일대기의 다양한 버전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승으로 언급된 이 같은 인물들의 저작들이 구체적으로 마이프레이나타의 저작 안에서 인용되고 있는지, 인용된다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지에 대한 연구에까지 나아간다. 이는 밀교 수행에 대한 교설적 입장의 해석 차이와 밀접하게 연결

6) (본서 pp.60-71):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자료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 찬술의 경우에는 저자의 일대기가 전해지는 경우(1), 그 저자가 속한 특정 전통의 계보에 대한 기술이 담긴 사본이나 문헌이 전해지는 경우(2)가 있고, 티벳 자료의 경우에는 성인전(hagiography)를 포함한 특정 전통의 계보가 남아 있는 경우(3), 티벳에서 찬술된 역사서의 기술(4)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저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 기록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계 제자 혹은 동전통의 저자들에 의해서 본 저자의 작품 혹은 일대가 간접적으로 구술되는 경우(5)도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

되기 때문에 논의가 길고 복잡하여 여기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Appendix 2 (본서 pp.361-6)를 통해서도 *Sekanirdeśa* 계송들의 출처, 평행/유사문구, 인용하는 문헌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라마빨라의 *Sekanirdeśapañjikā*에서는 특히 『짜뚜르무드란바야 *Caturmudrānvaya*』(티벳역은 \**Caturmudrānīścaya*로 번역)의 구절을 비중 있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절 또한 Appendix 2에서 재편집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Caturmudrānvaya*라는 저작은 그동안 마이프레야의 저작 모음집인 *Advayavajrasaṃgraha*에 속한 사본들을 통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학계에서는 이 문헌이 마이프레야나타의 작품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 문헌이 마이프레야나타가 아닌 밀교 전통의 나가르주나(Nāgārjuna)의 저작임을,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적어도 마이프레야나타와 라마빨라의 시대에는 나가르주나에게 귀속되어 있던 저작이었음을, 다른 인도 저자들의 인용을 통해서 밝혀낸다).

다음으로, 서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헌론적(philological) 기본정보와 사본의 계통분석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두 텍스트의 비판교정본 중 *Sekanirdeśa*는 총 여덟 개의 범어 사본을 통해, 주석서 *Pañjikā*는 전술했듯 두 개의 사본을 통해 작업되었다. 본 연구는 물리적 객체(physical object)로서 사본의 크기, 레이아웃, 필사상의 특징, 콜로폰(colophon)을 통한 필사 연대와 지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본서 pp.125-141)을 먼저 제시한 후, 각 사본의 계통(stemma)에 대해 분석한다(본서 pp.143-153). 본 연구의 서술에 따르면, *Sekanirdeśa*에 사용된 전체 사본은 세 가지 계통의 전승 그룹으로 나눌 수 있

---

7) 「[바른] 관정의 해석」이란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Sekanirdeśa*의 주요 쟁점은 밀교 관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네 가지 아난다(ānanda)의 바른 순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거가 *Caturmudrānvaya*이기 때문에, 이 문헌의 저자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라마빨라의 인용을 통해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조적으로 *Caturmudrānvaya*의 저자로서 [탄트릭] 나가르주나가 언급되는 것을 비판하는 후대 타전통 밀교저자들의 몇몇 구절을 예로 들어, 이 문헌의 저자 귀속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서평의 II를 참조.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해당 시기 이전에, *Pañcakrama*와 같은 중기 밀교 문헌에서 나가르주나와 같이 대승철학의 주요 저자들의 이름이 인도 밀교 전통에서도 재등장하는 배경과 저자 귀속성의 문제 등 관련 연구사에 대해서는, 줄고 「『오차제(*Pañcakrama*)』 2장의 후대 삽입과 전승의 의미-사공(四空)과 관련하여」, 『불교학연구회』, Vol.60, 2019, pp.50-80를 참조.

다고 한다. 주석서의 경우는 Ca 사본보다 Pt 사본이 전하는 읽기(reading)가 전체적으로 나은(superior) 증언을 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둘이 이전 어느 시점에서 중간-원형(hyparchetype)의 전승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계통 분류에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전해져 제작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사본 특징과 계보에 관한 서술은 간혹 사본학(codicology)에 해당되는 기본 정보로만 취급되어 텍스트의 내용연구와는 별개의 것으로 간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에 사용하는 편집된 텍스트는 모두 어떤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서 전승,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으로 교정된 모든 텍스트는 결국 ‘어떤 특정한 전승본의 재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편집된 텍스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통해 우리는 문헌 간의 층위를 밝히면서, 그와 함께 사상적 발전 과정도 추적하게 되기 때문에, 사본의 기본적인 정보는 ‘편집/재현된 텍스트’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본 분석과 편집과정에서 어떤 텍스트 비평 기준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또 어떤 편집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문헌학 연구의 가이드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티벳역 편집본의 경우도 데르계(약호 D), 간댄(G), 나르탕(N), 북경(P)판 뿐만이 아니라, 본문헌을 중요하게 취급해 온 카규 전통이 개별적으로 전승하는 두 개의 전승본(dPal과 mDzod)이 함께 참조되었는데, 각 티벳역 버전의 분석을 통해 본문헌이 티벳에서의 수차례에 걸쳐서 번역되었다는 점과 그 정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공한다.

## II. 11세기 인도 밀교의 중요 논쟁 해명

*Sekanirdeśa*는 마이뜨레야나타가 밀교관정에 대한 그의 입장을 마흔 한 개 계층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운문의 특성상 의미가 압축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석의 존재는 저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편집, 번역된 라마빨라의 주석은 마이프레야나타의 사상은 물론 인도 밀교의 논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일차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크다. 또한 본 연구의 가장 큰 강점인 원문에 충실한 번역과 해설은 원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텍스트 너머의 문맥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특유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유난히 인도밀교의 텍스트들이 난해하게 느껴졌던 독자들이라면, 본 연구의 주석과 번역을 통해 원문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텍스트의 주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라마빨라는 마무리 계송들을 통해 “스승의 독려에 따라(*tadājñābhiḥ*), 관정을 잘못 이해한 이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주석했다”는 저술 의도와 배경을 밝힌다<sup>8)</sup>. 이는 다시 풀이하자면, 10세기 전후로 인도 밀교의 관정, 특히 네 가지 관정체계 중에서 세 번째인 관정인 반야지관정(般若智灌頂, *prajñājñānābhiṣeka*)에서의 수행 경험에 대한 당대의 이슈와 논쟁이 첨예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주제 자체가 밀교 연구에서 완전히 처음 다뤄지는 이슈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관점에서 암시되었던 과거 연구와 견주자면, 관련 논쟁의 성립 배경과 각 학파의 입장 차이의 원인이 되는 주요 밀교경전들의 상이한 진술에 관한 통합적이며 선명한 분석은 본 연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무르익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이프레야나타와 라마빨라가 지지하는 입장(A로 지칭)은 네 종류의 아난다(*caturānanda*, 四至福/四歡喜)가 ①*ānanda* ⇒ ②*paramānanda* ⇒ ③*sahajānanda* ⇒ ④*viramānanda*라는 순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라뜨나까라산띠가 있다. 이와 상반된 입장(B로 지칭)은 ①*ānanda* ⇒ ②*paramānanda* ⇒ ③*viramānanda* ⇒ ④*sahajānanda*의 순서로 지복의 경험이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인데, 본서의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헤바즈라주

8) 라마빨라의 마무리 계송을 통해 전해지는 저술의 목적과 정황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본서 p.111을 참조 (해당 계송의 편집본은 본서 p.203, 영역은 p.333)



석을 남긴 까말라나타(Kamalanātha), 12세기 밀교 연구를 집대성한 아바야까라 굽따(Abhayākara Gupta)와 깔라짜끄라(Kālacakra) 전통의 저자 등이 이에 속한다. 결국 쟁점은 saḥajānanda가 viramānanda의 앞에 위치하는 것인가 뒤에 오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입장차의 발로는 몇 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요기니판뜨라의 대표 경전이며, 관정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게 되는 『헤바즈라판뜨라 Hevajratantra』의 등장과 유통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논의(본서 pp.94-111)에서는 A와 B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자들이 정전적 전거로서 인용하는 Hevajratantra의 계송들에 대해 다룬다. 그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A입장의 주석가들은 Hevajratantra 2.2.40ab, 1.10.18cd<sup>9)</sup> 등에서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반대로 B입장의 저자들은 1.8.32나 1.10.15 등과 같은 계송<sup>10)</sup>을 전거로서 든다. 본 연구는 Pañjikā에서 라마빨라가 Hevajratantra 2.5.70e (viramādhī), 1.10.18c (viramādaū), 1.8.32d (śeṣataḥ) 등의 동일한 단어들인 A와 B라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룬다. 대론의 형식으로 라마빨라가 주석하는 관련 논의는 당대에 어떤 해석들이 특히 문제가 되었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본 연구는 관련 원문 이해를 선명하게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

네 가지 아난다를 발생시키는 바른 순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카르마무드라(karma-mudrā, 業印), 다르마무드라(dharma-mudrā, 法印), 사마야무드라(samaya-mudrā, 三昧耶印), 마하무드라(mahā-mudrā, 大印)라는 네 가지 무드라(catur-mudrā)에 상응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본 연

9) ③saḥajānanda⇒④viramānanda의 A입장이 인용하는 Hevajratantra 계송(번역은 필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2.2.40ab saḥajānandasvabhāvo 'haṃ paramāntaṃ viramādikaṃ | (나는 parama-ānanda의 끝/후이며, virama-ānanda의 앞/전에서 [생겨나는] saḥaja-ānanda라는 자성을 지닌다오); 1.10.18cd viramādaū lakṣayet tac ca ānandatrayavarjitaṃ || ([수행자는] virama[-ānanda]가 시작될 때, 세 가지 ānanda[=ānanda, paramānanda, saḥajānanda]를 떠난 상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10) ③viramānanda⇒④saḥajānanda의 B입장이 인용하는 Hevajratantra 계송(번역은 필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1.10.15 prathamānandaṃ jagadrūpaṃ paramānandaṃ jagat tathā | viramānandaṃ jagac caiva na vidyate saḥajaṃ triṣu || (세계의 형상을 한 첫 번째 ānanda와, 것처럼 [다음의] parama-ānanda라는 세계, 더하여 virama-ānanda라는 세계, 이 세 가지 [세계]에 saḥaja-ānanda)는 없다.)

구는 이점에 있어서도 A와 B의 견해차이가 관정을 통해 얻게 되는 실재(tattva)의 불이원론적 체험, 진여를 수습하기 위한 차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첨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원문들을 통해 증명한다. 그러나 네 가지 무드라(四印)의 상응 관계는 *Sekanirdeśa*와 그 주석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마이뜨레야나타의 기타 저작들을 전체적으로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예증하고 있다<sup>11)</sup>.

달리 말하면, *Sekanirdeśa*의 주요 논의는 무드라(四印)의 상응 관계보다는 ‘바른 관정(suṣeka)’의 정의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마이뜨레야나타와 라마빨라가 비판하는 관정에는 ‘강제적 관정(haṭhaseka)’과 ‘그릇된 관정(duḥseka)’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본서에서 상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이뜨레야나타와 라마빨라는 saḥajānanda를 세 번째 순서로 두는 B의 입장이 불교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이를 ‘강제적 관정(haṭhaseka)’으로 정의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견해가 ‘스승의 구전적 비밀 가르침 없이 책에만 의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그릇된 관정(duḥseka)’은 관정 등에서의 성적 교합 자체를 본질적이며 고유한 지복 상태인 saḥajānanda와 동일시하는 입장으로서, 이는 마이뜨레야나타에 의해 부정, 비판된다. 그는 이러한 관정을 비불교도의 것이라 말하며, 라마빨라는 이를 샤이바와 베단타 학파의 입장으로 특정한다. 이러한 마이뜨레야나타의 해석은 그가 분류하는 대승 교설의 대표적인 네 가지 입장, 유가행(Yogācāra)의 유형상론(有形相論, sākāravāda)과 무형상론(無形相論, nirākāravāda), 중관의 여환론(如幻論, māyopamavāda)과 무주론(無住論, apratiṣṭhānavāda)의 구분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의 입장에서 가장 수승한 관점은 중관의 일체법무주론으로, 그렇기에 밀교 관정을 통한 희열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비이원론적 심상태를 진실(tattva)과 동일시하는 유가행의 관점

11) 대신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무드라(mudrā)에 대한 마이뜨레야나타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저작을 소개, 수록한다. 티벳역으로만 남아있는 \**Caturmudropadeśa*의 편집본과 영역은 Appendix 4(본서 pp.385-398)를 참조.

은 한계를 지니며, 이로부터 공성을 깨닫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데에 본 문헌과 주석서의 저작 의도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이는 중세기 인도 밀교의 저자들이 대승 교학적 입장에서 밀교 수행을 통합하는 과정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이다.

### III.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본서에서 다루는 연구 범위는 인도고유찬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티벳에서 마이뜨리파(Maitrīpa)라고도 불리는 마이뜨레야나타/아드바야바즈라의 저술과 사상은 특히 티벳불교의 마하무드라 해석에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Amansikāra 전통과 마하무드라에 대한 후대 티벳의 논쟁을 상세히 다루지 못한 점을 한계로 언급한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록 부분에서 외부 저자들의 원고를 함께 실어 관련 티벳 자료나 연구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티벳 마하무드라 전통에 관한 연구자인 클라우스-디터 마테스(Klaus-Dieter Mathes)가 정리한 붐라와르('Bum la 'bar)의 *Sekanirdeśa* 주제별 개요(sa bcad)는 Appendix 3(본서 pp.367-384)에서<sup>12)</sup>, 마르코 파사반티(Marco Passavanti)가 연구한 투치 컬렉션(Tucci Collection) 소장 13세기 티벳 사본에 담긴 마이뜨레야나타의 전기는 Appendix 8(본서 pp.431-44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저자들도 추가적으로 마이뜨레야나타가 비(非)밀교적인 의미에서 마하무드라 가르침을 설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존의 학계 논의를 엄밀히 재검토하는 소논문을 Appendix 6(본서 pp.411-420)<sup>13)</sup>에 함께 수록해 놓았다.

12) 티벳역사서 『청사 *Deb ther sngon po*』에서는 Bra'o 'Bum la bar라고도 이름이 언급되며, 이 인물이 마이뜨레야나타의 직계 제자 중 한 명인 바즈라파니(Vajrapāni)으로부터 마하무드라 가르침을 전수받았다고 전한다. 붐라와르('Bum la 'bar) 인물이 정확히 어떤 이를 가리키는지, 관련된 사료의 유사 이름에 대해서는 본서 p.367 참조. 디궁카규('Bri grung bka' brgyud) 학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문헌들의 사본들이 근래 라사에서는 발견, 출판되었는데, Appendix 3(본서 pp.367-384)에서 마테스(Mathes)가 정리한 내용도 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13) 이 부분에서는 마이뜨레야나타가 비(非)밀교적 교설로서 마하무드라를 설했다는 주장을 해온 마테

본서가 보여준 학적인 가치는 방대한 문헌적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존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논의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어 사용되던 환범(re-sanskritization)된 제호, 인명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로 들 수 있을 듯하다. 밀교의 티벳 전파의 중요인물인 디팡까라슈리즈나나(Dīpaṅkaraśrījñāna)는 흔히 티벳 자료에서 조보제(Jo bo rje)라는 별칭으로 불리거나 혹은 아티샤(A ti sha)라고 음사된다. 이러한 명칭(epithet)을 기반으로 아이머(Eimer)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가설에 따라, 지금까지 관련 학계는 그의 범어 이름을 아티샤(\*Atiśa/Atiśa)라고 통칭해 왔으며, 티벳 음사는 Atiśaya로부터 파생된 것이라 가정했다. 하지만, 본서는 이 아티샤라는 이름이 현존하는 인도찬술 사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위인의 이름 앞에 붙이는 존칭으로서 atīśaya가 사용되는 경우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아마도 아디샤(\*Adhiśa)라는 별칭이 티벳에서 아티샤로 발음되면서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본서 p.70, fn.51)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 이 새로운 관점 또한 계속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검증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필자가 이러한 논의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러한 예가 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특정규약이 혹은 그 의미가 잊혀지거나 상실된 채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에 언제나 기존 논의를 새롭게 재고해봐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학계에서는 보통 환범한 용어나 문헌의 제목에는 그것이 환범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단어 앞에 별표(\*)를 붙이는데, 가끔이 암묵적 동의가 생략되기도 한다. 그러다 만약 이 동의의 중요성이 점차 희석되면, 우리는 ‘가능성 있는 추정’을 어느샌가 ‘확정’으로 받아들일게 될지도 모른다.

관련 학계에서 이 책은 ‘빨간 벽돌’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책의 연구 성과의 무게감을 함축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외형에 대한 직관적 표현이기도

---

스의 일련의 논문들, 특히 논문에서 전거로서 인용, 번역되었던 범어 원문의 문맥과 번역을 다시 상세하게 검토, 교정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에 핵심적인 수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하다. 새빨간 겉표지에 일반 서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A4 사이즈, 거의 육백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 것도 있지만, 편집본에서 참고한 각종 고층 사본들의 복제 이미지의 재판을 포함시키느라 꽤 무게가 나가는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서평을 쓰는 필자도 이 책을 외출할 때 가지고 다녀볼 엄두를 내 본적이 없는데, 굳이 꼽아야 한다면 이러한 점이 이 책이 가진 유일한 단점이 될 듯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벽돌들이 있어야만 내구성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밀교 연구분야에서 있어서도 이 책을 발판삼아 견고한 연구서들이 계속해서 빚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